

# 여자축구 월드컵 준비 잉글랜드 컵대회 출전

### 잉글랜드·벨기에·이탈리아와 대결 지소연·이금민 등 출전 컨디션 체크 이민아 부상으로 출전 못해 아쉬움

한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7월 20일~ 8월 20일)의 해 첫 경기에 '에이스' 지소연(수원FC)과 해외파 이금민, 박예은(이상 브라이턴) 등이 출격한다.

여자 축구 대표팀의 콜린 벨(잉글랜드) 감독은 26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 26명의 2월 소집 명단을 발표하고 계획 등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남해에서 국내파 소집 훈련을 진행한 뒤 한 달여 만에 모이는 대표팀은 30일부터 울산에서 훈련하다가 다음 달 10일 출국, 잉글랜드에서 열리는 아널드 클라크컵 대회에 나설 예정이다.

아널드 클라크컵은 잉글랜드축구협회 주최 여자 축구 국제 친선대회로, 지난해 2월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캐나다가 참가해 1회 대회를 치른 바 있다.

올해는 한국과 잉글랜드에 이탈리아, 벨기에 여자 대표팀이 출전해 한 차례씩 맞붙는다.

한국은 2월 16일 잉글랜드, 2월 19일 벨기에, 2월 22일 이탈리아와 차례로 격돌할 예정이다. 경기는 각각 잉글랜드 밀턴킨스, 코벳트, 브리스틀에서 열린다.

이번 명단엔 발목 부상으로 11~12월 일정에 합류하지 못했던 대표팀의 간판 지소연이 복귀했고, 잉글랜드 무대에서 뛰는 이금민과 박예은도 이름을 올렸다.

최유리, 장슬기, 김혜리, 김정미(이상 현대제철)를 비롯한 기존 주축 선수들에 '젊은 피' 천기람(울산과화대) 등도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미드필더 조소현(토트넘)과 이영주(마드리드CFF)는 부상으로 이번 소집 참가가 불발됐고, 지난해 11월 뉴질랜드 평가전과 WK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맹활약한 이민아(현대제철)도 부상으로 이번엔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울산 훈련에는 23명의 선수만 참여하며, 이금민과 박예은, 해외 구단 입단을 위해 현지에서 머물고 있는 골키퍼 운영규는 현지에서 합류할 계획이다.

벨 감독은 "아널드 클라크컵은 유럽 스타일에 적응할 기회가 될 거로 생각한다. 상대 세 팀 모두 피지컬을 앞세운 플레이를 많이 해서 배울 점도 있을 것"이라며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맞붙을 독일, 그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콜린 벨 감독이 26일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고 이후 만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유럽 팀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좋은 학습의 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 선수들은 대부분 프리 시즌 기간이지만, 아널드 클라크컵에 출전할 다른 팀의 선수들은 시즌 중이라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선수들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만들어가는 시간이 중요하다. 울산에서부터 잘 체크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국대 투수 롯데 김원중, 고향 광주서 '뜨거운 겨울'

### 모교 동성고에서 시즌 준비 후배들에 따뜻한 겨울옷 선물 "WBC에서 대차게 던지겠다"

'국가대표' 투수가 된 광주 출신의 롯데 김원중이 고향에서 뜨거운 겨울을 보냈다.

김원중은 광주 동성고가 배출한 대표적인 야구 선수 중 한 명이다. 모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매년 겨울 동성고를 찾아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김원중은 이번 겨울 경사를 맞았다.

오는 3월 치러지는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면서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국가대표가 된 김원중은 후배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옷을 선물하기도 하는 등 의미 있는 겨울을 보냈다.

김원중은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왔다. 감사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생각도 안 해봤는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해주셔서 거기에 걸맞게 몸을 잘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철 WBC대표팀 감독은 김원중의 발탁 이유로 그의 주무기인 '포크볼'을 꼽았다. 마운드에서의 배짱도 김원중을 돋보이게 한다.

김원중은 "공인구가 다르기는 한데 모든 선수가 똑같은 공을 사용하는 만큼 적응 잘해서 시합 잘하겠다"며 "아마 긴장하지 않고 대차게 던지는 모습을 보고 뿌아주시지 않았나 한다. 마운드에 안 올라가 봐서 장담 못하겠지만 긴장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싸워보고 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동성고 후배들에게 김원중은 살아있는 교과서다. 김원중 역시 프로 선배들을 보면서 프로의 꿈을 꾸고, 국가대표라는 목표도 이뤘다.

김원중은 "후배들과 같이 연습하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알려주려고 한다. 나도 (양) 현종이 형을 많이 보고 자란 후배로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후배들도 나를 보고 목표 세우고 프로, 국가대표라는 큰 무대로 와서 같이 시합을



광주 동성고 출신의 롯데 김원중이 WBC 공인구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하면 좋겠다"며 "매년 코치님께서 선수들 한 명씩 바 달라고 말씀해주시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알려주려고 한다. 후배들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프로에 있는 선배가 알려주면 다르게 외닿는 것도 있고 할 것이다.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같이 했던 만큼 후배들 경기한다고 하면 TV 보면서 응원하고, 재미있게 보게 된다"고 웃었다.

후배들에게 선배로서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는 김원중은 이번 겨울에는 바람막이 운동복까지 선물했다.

김원중은 "후배들이 추운데 따뜻하게 운동하려고 옷 한 벌씩 해줬다. 필요한 것, 선물 해주고 좋은 성적 내서 같이 프로 와서 시합하면 그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다"며 후배들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일찍 시작하게 되는 시즌인 만큼 '체력'이 관건이 될 2023시즌이다. 김원중은 이에 초점을 맞춰

국가대표는 물론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을 하겠다는 각오다.

김원중은 "먼저 시작하고 빨리 준비해야 하는 시즌이니까 몸 관리에 더 신경 쓰겠다. 시즌 초부터 끝날 때까지 차질없이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며 "목표, 숫자 세우고 시작하는 편은 아니어서 건강하게 시즌 치르다 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열심히 몸 관리하겠다. 체력적으로 힘든 시즌이 분명할 것이니까 그 부분을 가장 1번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팬분들한테도 (국가대표 발탁이) 좋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기본 좋고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잘하겠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롯데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다. 나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이재성 시즌 3호 골 ... 마인츠는 도르트문트에 1-2 역전패

### 분데스리가 17라운드

이재성(31)이 시즌 3호 골을 터뜨렸지만, 소속팀 독일 프로축구 마인츠는 도르트문트에 역전패했다.

마인츠는 26일 오전 독일 마인츠의 메바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시즌 분데스리가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1-2로 졌다.

3경기 만에 선발 출전한 이재성은 전반 2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재성은 에디밀손 에르난데스가 왼쪽에서 열린 코너킥을 머리로 받아 득점했다.

이로써 이재성은 올 시즌 리그에서만 3골 1도움을 기록했다. 마인츠는 그러나 볼과 2분 뒤 동점골을 내줬다.

도르트문트 윌리안 뤼에르손이 페널티킥 장면에서 날린 왼발 중거리슛이 마인츠 골망을 흔들었다. 도르트문트는 후반 48분 코너킥 상황에서 제바스티안 할러의 헤더에 조반니 레이나가 발을 갖다 대 승부를 극적으로 뒤집었다.

6경기 무승(2무 4패)에 그친 마인츠는 12위(승점 20·5승 5무 7패)에 머물렀고, 도르트문트는 5위(승점 31·10승 1무 6패)로 올라서며 4위권 진입에 한발 다가섰다.

정우영(24)이 결장한 프라이부르크는 프랑크푸르트와 1-1로 비겼다.

정우영은 출전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그라운드에서 나오지는 못했다.

프라이부르크에서 입지가 나쁘지 않은 정우영이 리그 경기에 결장한 것은 6경기만이다.

정우영은 올 시즌 리그에서 1골 2도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에서 1골 1도움 등 공식전 2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프라이부르크는 전반 42분 랍달 콜로 무야니에게 선제 실점했으나 후반 5분 마티아스 긴터의 동점골로 승점 1을 챙겼다.

/연합뉴스

# K리그2, 2023시즌 3월 1일 개막 전남드래곤즈, 광양서 안양과 경기



K리그2 2023시즌이 3월 1일 시작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6일 2023시즌 K리그2 정규라운드 1~39라운드까지의 일정을 발표했다.

올 시즌 K리그2는 새로 합류한 천안시티FC, 충북청주FC를 포함해 13개 구단이 우승을 향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팀 당 36경기를 치르게 되며, 홈수 팀이 참여하면서 매 라운드 휴식팀이 나온다.

2023시즌 개막라운드 6경기는 모두 3·1절에 열리며, 오후 1시 30분과 오후 4시로 나뉘 3경기씩 진행된다.

지난해 K리그2 최하위로 추락한 전남드래곤즈는 오후 1시 30분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리는 FC안양과의 개막전을 통해 설욕의 시즌을 연다.

지난해 준플레이오프에서 격돌했던 경남FC와 부천FC는 1일 오후 1시 30분 창원축구센터에서 다시 만난다. 신생팀 천안은 같은 시간 천안종합운동장에서 부산아이파크를 상대로 K리그2 데뷔전을 치른다.

이날 오후 4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는 이기형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성남FC와 임종현 감독 체제로 새 시즌을 맞는 안산그리너스가 맞대결을 벌인다.

충남아산과 김천상무는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격돌하고, 천안과 나란히 K리그2 무대에 도전하는 충북청주는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서울이랜드전을 통해 K리그2에 첫선을 보인다.

한편 올해도 월요일 저녁에 열리는 '먼데이 나이트 풋볼'이 펼쳐진다. 각 팀당 1회씩 모두 13경기가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벤투 감독이 '다리' ... 박지수,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 입단



포르투갈 리그의 포르티모넨스 구단이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대표 수비수 박지수(29)를 비롯한 5명의 선수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파울루 벤투 전 대표팀 감독이 포르티모넨스와 박지수 사이에 '다리'를 놨다.

/연합뉴스